

통일정세분석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2004. 10

전 병 곤

(국제관계연구실 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요 약>

- 이 보고서는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에서 결정된 주요 내용들을 검토하고 평가한 후, 이를 토대로 후진타오 시대 중국의 대내외정책을 전망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1. 주요 내용

- 중국공산당은 제16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이하 16기4중전회)를 개최(2004. 9. 16-19)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부주석 및 위원에 대한 재구성과 ‘당의 집권(執政)능력 건설 강화에 관한 결정’을 심의·통과시켰음.
- 장쩌민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사임하고 후진타오 총서기가 그 자리를 승계하고, 중앙군사위 부주석이었던 후진타오의 자리에 중앙서기처 서기이자 중앙군사위 위원인 쉬차이호우(徐才厚)가 발탁되고, 중앙군사위 위원에 천빙더(陳炳德), 차오칭천(喬清晨), 장딩파(張定發), 징즈위안(靖志遠) 등 4명을 새로 충원함.
- 이번 16기4중전회에서는 ‘당의 집권능력 건설을 강화하는데 관한 결정(中共中央關於加強黨的執政能力建設的決定)’이 심의·통과되었는바, 구체적으로 이 결정은 1949년 이후 당의 집권 경험을 총괄한 토대 위에 집권능력 건설을 위한 지도사상과 총체적인 목표

그리고 주요 임무를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2. 평가

- 장쩌민이 후진타오에게 먼저 당권(총서기)을 물려주고 후에 군권(군사위 주석)을 평화적으로 물려준 점은 향후 중국에서 최고 지도자의 권력교체에 하나의 관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이번 인사조치로 당 총서기인 후진타오가 군 통수권을 장악함으로써, ‘군에 대한 당의 지도(以黨領軍, 黨指揮槍)’ 원칙이 비로소 실현되었음.
- 그러나 이번 인선과정은 중국공산당 최고 권력층의 선출이 여전히 공개 및 경쟁 선거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법과 제도에 의한 ‘공식 정치(formal politics)’보다는 합의에 의해 권력교체가 이루어지는 중국의 ‘비공식 정치(informal politics)’의 특성이 여전히 지속됨.
- 중국공산당의 집권능력 강화에 관한 결정도 당의 지배를 전제로 한 채 법과 제도에 의한 통치를 실현하려 한다는 점에서 중국정치의 제도화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짐.
-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이번 16기4중전회에서 이루어진 중국 최고지도자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제도화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후진타오 체제의 안정적 출범을 의미하나, 동시에 비제도적 측

면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 후진타오 체제에 적지 않은 과제를 가져다 줄 것임.

3. 후진타오 체제의 대내정책 전망

- 후진타오는 이미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으로서 국정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16기4중전회를 계기로 군권을 장악했다고 해서 기존의 대내외정책이 크게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나, 후진타오가 3권을 장악함으로써 후진타오의 정책 성향이 대내외정책에 점차 반영될 것임.
- 후진타오는 자신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마오쩌둥사상과 덩샤오핑이론, 특히 삼개대표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이의 적절한 변용을 통해 자신의 통치철학을 창출해갈 것으로 전망됨.
- 후진타오는 민족주의를 당의 통치적 지위와 체제안정 및 국민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광범하게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후진타오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모색하기 위해 당내 민주화와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건설과 같은 정치개혁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됨.
-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대내개혁과 대외개방 정책을 가속화할 것이나, 성장일변도의 불균형 발전전략보다 성장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시정하면서 발전을 추구하려는 균형발전전략을 중시할 것으로 예측됨.

4. 후진타오 체제의 대외정책 전망

- 후진타오 정부는 ‘국력을 향상시키며 기회를 기다리되, 할 일은 하는(韜光養晦, 有所作爲)’ 덩샤오핑 이후의 대외정책 기초를 계승하면서 ‘평화적인 부상(和平崛起)’을 공식 제기한바, 향후 후진타오 체제의 대외정책에서 ‘평화적 부상’의 측면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임.
- 대외정책의 핵심 축인 대미정책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을 완화시키고 경제발전에 유리하도록 기존의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임.
-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로 경색되었던 장쩌민 시기에 비해 실리와 타협 그리고 절차를 중시하는 후진타오의 중국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중심으로 한 정상적인 외교관계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대만정책은 기존의 평화통일과 일국양제의 방침 그리고 ‘강 팔점(江八点)’의 견지, 대만독립 불허 등의 기초를 유지할 것이나, 경제교류와 협력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됨.
- 북·중관계는 후진타오가 제4세대 지도자라는 점에서 정서적·이념적 유대감보다는 실리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중시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전통적 우호관계에서 통상적 국가간 관계로 점차 전환될 것임.

- 한국과의 관계는 노무현 대통령의 방중 시(2003. 7) 체결한 ‘ 전면적인 협력동반자 관계’의 큰 틀에서 경제 및 사회 교류가 확대될 것이나, 중국의 부상과 동북공정 등이 중화주의와 함께 동반될 경우, 한·중관계는 미묘한 갈등관계에 놓일 수 있음.

5. 정책적 고려사항

- 군권의 이양이 제도화된 틀 내에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중국의 정국이 안정되어 있고 대내외정책도 연속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었음을 의미함.
 - 따라서 기존 지도부와의 인적 유대와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미래를 대비한 4~50대의 중앙이나 지방 성급의 관료들과도 유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이 법과 제도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법안의 마련과 제도 정비를 모색하고 있는바, 장기적으로 중국이 제정한 관련 법안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 제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국민의 통합과 안정을 위해 민족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것이 대중화주의(great china)로 형성되는 것을 경계해야 함.
- 중국의 부상에 대비해야 하며, 특히 해·공군을 중심으로 한 군 현대화에 대비하여 해·공군을 포함한 군사교류와 군부인사와의 교류를 확대·강화해야 함.

목 차

I. 문제제기	1
II. 주요 내용 및 평가	3
1. 주요 내용	3
2. 평가	6
III. 후진타오 체제의 대내외정책 전망	10
1. 대내정책 전망	10
2. 대외정책 전망	14
IV. 정책적 고려사항	18

<표 >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인원

I. 문제제기

- 중국공산당은 제16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이하 16기4중전회)를 개최(2004. 9. 16-19)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부주석 및 위원에 대한 재구성과 ‘당의 집권(執政)능력 건설 강화에 관한 결정’을 심의·통과시켰음.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권력의 최고 핵심층인 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및 중앙군사위원회 등을 선출하고 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기구로서, 여기에서 결정된 내용은 중국공산당과 중국의 정책방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됨.
 - 16기1중전회(2002. 11)는 16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였고, 16기2중전회(2003. 2)는 새로운 임기의 10기전인대를 준비하였으며, 16기3중전회(2003. 10)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완비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장쩌민(江澤民)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사임하고 후진타오(胡錦濤)가 선출됨으로써 중국의 권력교체가 평화적으로 완성되었음.
 - 후진타오는 16차 당 대회(2002. 11)에서 당 총서기에, 10기전인대(2003. 3)에서 국가주석에 선출된 후, 이번에 당 중앙군사위 주석에 오름으로써 중국의 당·정·군 3권을 장악한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가 됨.
 - 그동안 당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제3세대 권력의 핵심인 장쩌민이 보유하여 중국 권력에 ‘두 개의 핵심’ 혹은 ‘두 개의 중앙’을 이룸으로써, 장과 후가 권력을 분점하는 장-후체제 또는 불완전한 세대교

체라는 평가를 받아 왔음.

- 그러나 이번 인사 조치로 중국은 제3세대에서 제4세대로의 권력교체를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후진타오 시대를 열게 됨.

○ 이와 함께 중국공산당은 당의 집권적 지위와 통치능력의 강화를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인선과 결정은 향후 중국공산당과 중국의 정책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이 보고서는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에서 결정된 주요 내용들을 검토하고 평가한 후, 이를 토대로 후진타오 시대 중국의 대내외정책을 전망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II. 주요 내용 및 평가

1. 주요 내용

가. 인선 결과

- 장쩌민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사임하고 후진타오 총서기가 그 자리를 승계함.
 - 장쩌민은 자신이 직접 쓴 편지를 통해 당 중앙군사위 주석직 사임 의사를 밝히는 한편, 16차 당 대회에서 총서기에 오른 후진타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자신의 직위를 맡아줄 것을 제의함.
 - 동시에, 장쩌민은 내년 개최 예정(2005. 3)인 10기 전인대 제3차회의에서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도 사임할 뜻을 밝힘.¹⁾
 - 당 중앙은 13기4중전회(1989. 6) 이후 13년간 장쩌민의 업적과 노고를 치하하고 후진타오를 선출하는 수순을 밟음.

-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조정함.
 - 중앙군사위 부주석이었던 후진타오의 자리에 중앙서기처 서기이자 중앙군사위 위원인 쉬차이호우(徐才厚)가 발탁되고, 중앙군사위 위원에 천빙더(陳炳德), 차오칭천(喬清晨), 장딩파(張定發), 징즈위안(靖志遠) 등 4명을 새로 충원함.
 - 이로써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인원은 주석 1인, 부주석 3인, 위원 7인으로 총 11인으로 구성됨(<표> 참조).

1)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가중앙군사위원회는 당과 국가의 기구라는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두 기구는 명칭만 다를 뿐 인적구성이 같음.

<표>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인원

직 위	성 명	비 고
주 석	胡錦濤 (승진)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부주석	郭伯雄 (유임)	
	曹剛川 (유임)	국방부장
	徐才厚 (승진)	총정치부 주임, 중앙서기처 서기
위 원	梁光烈 (유임)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당 중앙위원
	李繼耐 (유임)	총장비부 부장, 당 중앙위원
	廖錫龍 (유임)	총후근부 부장, 당 중앙위원
	陳炳德 (신임)	지난군구사령관, 당 중앙위원
	喬清晨 (신임)	공군사령관
	張定發 (신임)	해군사령관
	靖志遠 (신임)	제2포병사령관, 당 중앙위원

- 이밖에 부패혐의로 당 기율검사위원회에 의해 보고된 텐핑산(田鳳山) 중앙위원회 위원의 당적을 박탈하고,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인 아이스하이티·커리무바(艾斯海提·克里木拜)와 왕정웨이(王正偉)를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승진시킴.

나. ‘당의 집권(執政)능력 건설 강화에 관한 결정’

- 이번 16기4중전회에서는 중앙정치국회의(2004. 7월, 9월)에서 제기되어 후진타오에 의해 보고된 ‘당의 집권능력 건설을 강화하는데 관한 결정(中共中央關於加強黨的執政能力建設的決定)’이 심의·통과되었는바, 이는 향후 중국공산당의 중요 방침으로 작용할 것임.

- 구체적으로 이 결정은 1949년 이후 당의 집권 경험을 총괄한 토대 위에 집권능력 건설을 위한 지도사상과 총체적인 목표 그리고 주요 임무를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삼개대표론(三個代表論)’²⁾을 지도 사상으로 삼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인민의 이익을 강조하여 인민을 위한 ‘이민위본(以民爲本)’의 철학을 바탕으로 공산당이 ‘공익을 위해 당을 운영하고(立黨爲公), 인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執政爲民)’ 정당이 되는 것을 이념이자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주요 임무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운용, 사회주의민주정치의 발전, 사회주의선진문화의 건설, 조화로운 사회주의사회의 구축, 국제정세에 대응하고 국제사무를 처리하는 능력의 건설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아울러 법률과 제도에 의한 수단으로 당과 정부, 당과 인민대표대회, 당과 사회단체와의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법에 의한 통치(依法治國)’를 실현하는 것을 집권방식으로 제시함.

- 당의 집권능력 건설을 강조하는 의도는 1949년 획득한 정권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개방과 시장경제체제의 변화된 조건에서 국가의 건설을 이끌 수 있는 당을 건립하려는 데 있음.
 - 1978년부터 추진된 개혁개방 정책의 폐해로 등장한 지역 및 소득격차, 三農(농민·농업·농촌), 실업, 부패, 소수민족 문제 등이 체제안정 및 당의 집권적 지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됨.
 - 따라서 중국은 집권능력의 강화를 통해, 개혁개방 정책 추진 이후 20여 년간 시장화, 다원화, 사유화, 세계화 추세로 인해 변화된 현실

2) 중국공산당이 중국의 선진 사회생산력을 대표하고, 선진문화의 건설을 대표하고,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한다는 이론임.

에 적절히 조응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자 함.

2. 평가

가. 권력교체의 제도화 가능성

- 후진타오의 당 중앙군사위 주석 직 승계는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점에서 중국 정치의 제도화, 절차화, 규범화의 한 단면을 보여줌.
 - 과거 마오쩌둥(毛澤東)에서 화궈핑(華國鋒)으로, 화궈핑에서 덩샤오핑(鄧小平)으로, 그리고 덩샤오핑에서 장쩌민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에는 항상 당 내외의 투쟁과 정변이 존재했었으나 이번에는 예외임.
- 장쩌민이 후진타오에게 먼저 당권(총서기)을 물려주고 후에 군권(군사위 주석)을 물려준 점은 향후 중국에서 최고 지도자의 권력교체에 하나의 관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음.
 - 1987년 덩샤오핑은 중앙군사위 주석만을 남겨 놓고 당 중앙위원과 정치국 위원은 물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다가 1989년 6월 당 총서기에 오른 장쩌민에게 그 해 11월에 중앙군사위 주석 직위를 이양했던 선례가 있음.
- 78세인 장쩌민이 군사위 주석직에 유임해 왔다는 사실은 1997년 15차 당 대회에서 합의한 은퇴 연령(70세 이상)을 위반한 것이었으나, 이번 인사 조치로 합의를 지키게 됨으로써 권력교체의 규범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음.
 - 이러한 합의에 따라 1997년 15차 당 대회에서는 차오스(喬石)가,

2002년 16차 당 대회에서는 주룽지(朱鎔基), 리펑(李鵬)이 은퇴한 바 있음.

- 장쩌민의 합의 위반에 대해 당 내외의 여론이 좋지 않았으며, 이 점은 장쩌민이 물러나게 된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함.

○ 특히, 이번 인사조치로 평당원의 신분으로 군통수권을 장악하였던 장쩌민과 달리 당 총서기인 후진타오가 군 통수권을 장악함으로써, ‘군에 대한 당의 지도(以黨領軍, 黨指揮槍)’ 원칙이 비로소 실현되었음.

- 16기4중전회 폐막 직후 가진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후진타오는 군에 대한 당의 지도원칙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였음.

○ 장쩌민은 10기전인대 제3차회의(2005. 3. 예정)에서 국가중앙군사위 주석 직도 사임할 것을 밝혔는데, 실질적으로 국가 중앙군사위가 당 중앙군사위와 같은 기구이나 국가기구로서 전인대에 책임을 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절차를 따르는 것임.

○ 이밖에 중앙정치국의 중앙위원회에 대한 일방적 통보 방식을 심의·평가 방식으로 개혁하였던 16기3중전회에서의 시도를 이번 회의에서도 실천했는데, 이 점 역시 당내 민주화를 통한 중국 정치발전의 지속적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당의 집권능력 강화를 위해 의법치국을 강조한 것도 향후 정치 제도화의 지속적 측면을 의미함.

나. 권력교체의 한계성

- 이번 인선과정은 중국공산당 최고 권력층의 선출이 여전히 공개 및 경쟁 선거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 당장(黨章)에 따르면, 중앙위원회 위원은 전국대표대회의 대표에 의해 차액선거(差額選舉)³⁾ 방식으로 선출되나, 정치국 위원이나 정치국 위원이 담당하는 다른 중앙 기구들의 인선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거나 결정한다는 규정만 있음.

 - 이번 회의에서는 법과 제도에 의한 ‘공식 정치(formal politics)’보다는 합의에 의해 권력교체가 이루어지는 중국의 ‘비공식 정치(informal politics)’의 특성이 여전히 지속됨.
 - 비공식 정치는 개인의 권위나 ‘시(關係)’에 의해 이루어지는 원로정치와 파벌정치로 대표되며, 이러한 특성은 법치의 측면보다 인치(人治)의 측면이 존재함을 보여줌.
 - 이로 인해 장쩌민의 영향력이 여전히 건재한 반면, 후진타오의 군내 권력기반이 아직은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후진타오의 중앙군사위 주석 즉위가 곧바로 후진타오의 독자적인 권력행사로 이어지는 어려움.
 - 중국의 최고 권력층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9인 중에 우방귀(吳邦國), 자칭린(賈慶林), 쩡칭홍(曾慶紅), 황취(黃菊), 리장춘(李長春) 등 5인이 장쩌민 계열로 분류되고 있음.
 - 국무원에도 황취, 청페이안(曾培炎), 후이량위(回良玉), 화젠민(華建敏), 천쯔리(陳至立) 등이 장쩌민 계열임.
 - 군부 내에서도 귀보슝과 이번에 새로 군사위 부주석에 오른 쉬차이
- 3) 1987년 13차 당 대회에서 통과된 당장에서 후보자의 수가 더 많은 차액선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완전한 의미의 경쟁선거는 아님.

허우 역시 장쩌민 계열로 평가됨.

- 중국공산당의 집권능력 강화에 관한 결정도 당의 지배를 전제로 한 채
법과 제도에 의한 통치를 실현하려 한다는 점에서 중국정치의 제도화
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짐.
 - ‘당의 지도’ 원칙이 관철되고 있는 중국 정치체제의 특성 상 중국공
산당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중국정치의 제도화 가능성은 근본적으
로 요원함.
 - ‘공익을 위해 당을 운영하고(立黨爲公), 인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執政爲民)’ 정당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당의 집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인민을 위한(for the people)’ 정치를 추진하는 것이
지, 진정한 의미의 정치 제도화·민주화 - ‘인민에 의한(by the
people)’, ‘인민의(of the people)’ 정치 -와는 거리가 있음.

-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이번 16기4중전회에서 이루어진 중국 최고지
도자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제도화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후진
타오 체제의 안정적 출범을 의미하나, 동시에 비제도적 측면이 존재한
다는 점에서 향후 후진타오 체제에 적지 않은 과제를 가져다 줄 것임.

Ⅲ. 후진타오 체제의 대내외정책 전망

- 후진타오는 이미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으로서 국정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16기4중전회를 계기로 군권을 장악했다고 해서 기존의 대내외정책이 크게 전환되지는 않을 것임.
 - 다만, 후진타오가 3권을 장악함으로써 후진타오의 정책 성향이 대내외정책에 점차 반영될 것임.

1. 대내정책 전망

가. 정책이념

- 후진타오는 자신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이론, 특히 삼개대표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이의 적절한 변용을 통해 자신의 통치철학을 창출해갈 것으로 전망됨.
 - 후진타오는 그 동안 인민을 중시하며 인민과 함께 하는 친민(親民) 정책의 일환으로 인민에게 다가가는 세 가지 원칙인 ‘삼첨근(三貼近: 貼近實際, 貼近群衆, 貼近生活)’을 제시한 바 있음.
 - 또한 ‘권력은 인민을 위해 쓰고, 인정은 인민을 위해 쏟고, 이익은 인민을 위해 도모한다(權爲民所用, 情爲民所系, 利爲民所謀)’는 신삼민주의(新三民主義)를 제기한 바 있음.
 - 이는 삼개대표론 중 인민의 근본 이익을 대표한다는 부분의 계승적 발전으로 볼 수 있음.

나. 국내정치

- 후진타오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대외개방에 따른 사회주의적 가치와 사회주의 통치이념의 공백을 전통적으로 내재해 있는 민족주의로 점차 메우려 할 것이며, 이를 당의 통치적 지위와 체제안정 및 국민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광범하게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16차 당 대회에서 중국공산당은 중화민족을 대표하는 정당임을 당장(黨章)에 삽입한 바 있음.

- 이런 점에서 후진타오 체제는 55개 소수민족에 대해서도 안정과 통합을 위해 모두 중화민족으로 포용하려는 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됨.
 - 후진타오는 시장(西藏: 티벳)성 당위원회 서기로 재직 당시 소수민족인 티벳족의 분리운동에 대한 강력한 무력진압 정책을 시행한 바 있음.

- 후진타오는 체제의 공고화와 권력기반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공청단 출신과 모교인 청화대(靑華大) 인맥을 중용하거나 꾸준히 발탁할 것으로 예상됨.
 - 기존의 후진타오 계열로 분류되는 인사로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후이량위 부총리, 마카이(馬凱) 국가발전계획위 주임,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 리즈룬(李至倫) 검찰부장, 리더주(李德洙) 국가민족위 주임 등이 있으며, 이외 에도 텐충밍(田聰明) 신화사 사장과 류옌둥(劉延東) 당 통일전선부장 등이 있음.
 - 링지화(令計劃) 중앙관공청 부주임, 판웨이(潘岳) 국가발전개혁위 부주임, 허난(河南)성 당 위원회 서기인 리커창(李克強)과 장쑤(江蘇)성 당 위원회 서기인 리위안차오(李源潮)가 후발주자들로 주목되는 인사임.

다. 정치개혁

- 후진타오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모색하기 위해 당내 민주화와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건설과 같은 정치개혁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됨.
 - 16기4중전회에서도 당은 ‘과학집정·민주집정·의법집정’을 결정하고 이를 전당이 학습하도록 시달하였음.

- 사회주의민주정치와 사회주의법치국가의 건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이 당-국가(party-state) 체제의 안정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상정해 왔으며, 후진타오 정부에 의해 더욱 강조되고 있음.⁴⁾
 - 왜냐하면, 공식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진 후진타오는 법과 제도에 의한 정치를 통해 파벌에 의해 움직이는 장쩌민의 비공식적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임.

-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부패척결 노력은 부패의 감시와 예방 차원을 고려한 법제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
 - 중국의 반부패정책은 공산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유리하며, 후진타오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부패척결 노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라. 경제발전전략

-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대내개혁과 대외개방 정책을 가속화할 것임.

4) 원래 법제건설은 덩샤오핑 집권 이후 제기되어 온 것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강조되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사회주의법치국가의 건설을 헌법에 삽입하였음.

- 중국공산당은 16차 당 대회에서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액을 2000년 대비 4배로 증대시킨다는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의 건설’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음.
- 다만, 중국은 성장일변도의 불균형 발전전략보다 성장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시정하면서 발전을 추구하려는 균형발전전략을 중시할 것으로 예측됨.
 - 중국공산당은 이미 16기3중전회(2003. 10)에서 ‘전면적이고 조화로 우며 지속가능한 신 발전관(全面, 協調, 可持續的發展觀)’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성장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시정하면서 발전을 추구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티벳과 구이저우(貴州)성 등 낙후한 지역에서 근무한 바 있던 후진타오의 경험은 이러한 예상의 근거가 됨.
 - 따라서 낙후한 지역의 발전과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서부대개발과 동북공정도 더욱 가속화할 것임.

마. 국방

- 차오강촨 부주석을 제외하면 군부 내에 인맥이 취약한 후진타오는 군 현대화 계획을 통해 군에 대한 통솔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됨.
 - 새로 임원으로 발탁된 차오칭천 위원과 장딩파 위원이 공군과 해군 사령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해·공군의 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군 현대화 정책이 수행될 것으로 예상됨.

2. 대외정책 전망

가. 정책기조

- 16기4중전회를 계기로 후진타오가 장악한 군권이 중국의 대외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지는 않으며, 기존 대외정책의 기조는 유지될 것임.
 - 즉, 종합국력의 신장에 유리한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신장된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되, 책임 있는 강대국의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중국의 부상에 대한 주변국의 위협을 완화시키고자 함.
- 다만, 후진타오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다는 점은 실리와 타협을 중시하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성향을 강조하는 후진타오의 개인적 특성이 대외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임.
- 또한 후진타오 정부는 ‘국력을 향상시키며 기회를 기다리되, 할 일은 하는(韜光養晦, 有所作為)’ 덩샤오핑 이후의 대외정책 기조를 계승하면서 ‘평화적인 부상(和平崛起)’을 공식 제기한바, 향후 후진타오 체제의 대외정책에서 ‘평화적 부상’의 측면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임.
 - 평화적 부상은 강대국의 견제와 주변국의 중국위협에 대한 인식을 완화시키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임.
 - 이를 위해 합의와 절차를 중시하는 국제기구나 다자외교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

나. 대미정책

- 대외정책의 핵심 축인 대미정책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을 완화시키고 경제발전에 유리하도록 기존의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임.
 - 이에 따라 테러와의 전쟁, 북핵문제에서의 협조, 유엔과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등은 지속될 것임.
 - 아·태 경제협력체(APEC, 2004, 11 예정)의 정상회의에서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음.

- 다만,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미국의 중국봉쇄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후진타오의 행보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후진타오는 유럽 순방을 두 번이나 했음.
 - 원자바오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2004. 9. 23 - 25)하여 경제무역과 에너지 협력에 합의했음.⁵⁾
 -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나 그때까지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임.

다. 대일정책

-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로 경색되었던 장쩌민 시기에 비해 실리와 타협 그리고 절차를 중시하는 후진타오의 중국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중심으로 한 정상적인 외교관계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이 일본대사에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 출신을 임명(2004. 9)하여 일본을 중시한 점이나, 후진타오가 일본 중의원 의장 고노 요헤이(河野洋平)를 접견(9. 22)한 점은 관계개선의 의미로 해석됨.

5) 중국은 미국의 중동전쟁과 중앙아시아 진출을 에너지 수급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해 왔음.

-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경쟁관계에 있고,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반대와 중국 내 반일 민족주의 정서 등을 고려하면, 양국관계의 급진적인 호전은 기대되지 않음.

라. 대만정책

- 중국의 대만정책은 후진타오가 중앙대만영도소조의 조장을 담당해왔기 때문에 기존의 평화통일과 일국양제의 방침 그리고 ‘강팔점(江八点)’⁶⁾의 견지, 대만독립 불허 등의 기초를 유지할 것임.
 - 다만, 후진타오가 장쩌민에 비해 실리적이고 타협적이기 때문에 양안간의 무력대치와 같은 강경책 보다는 경제교류와 협력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법과 절차를 중시하는 후진타오의 정책성향에 따라 통일법을 제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법의 틀 내에서 양안관계가 규정될 것임.
 - 미국의 대선 결과와 12월의 대만 입법원 선거가 변수임.

6) 장쩌민이 대만에 제기(1995. 1)한 것으로서 대만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하나의 중국원칙 고수, 민간 경제교류의 견지, 평화통일 회담의 견지, 대만 독립에 개입하는 외세에 한해 무력사용, 양안의 경제교류와 협력, 중화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공동 계승, 대만인의 생활방식을 존중, 양국정상의 상호방문.

다. 한반도정책

- 중국의 기존 한반도정책 기조인 한반도 비핵화 원칙, 평화와 안정의 유지, 남북한간 자주적 평화통일의 지지 등은 불변함.

- 북·중관계는 후진타오가 제4세대 지도자라는 점에서 정서적·이념적 유대감보다는 실리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중시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전통적 우호관계에서 통상적 국가간 관계로 점차 전환될 것임.
 - 다만, 금년 4월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고려하면 양국관계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중국도 평화롭고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식량과 에너지 지원은 지속될 것임.
 - 다른 한편, 중국은 핵문제를 포함하여 북한의 돌발행동을 자제시키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려는 측면이 강화될 것임.

- 한국과의 관계는 노무현 대통령의 방중 시(2003. 7) 체결한 ‘전면적인 협력동반자 관계’의 큰 틀에서 경제 및 사회 교류가 확대될 것임.
 - 최근 한국의 핵관련 연구를 6자회담의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에서 보듯이, 향후 양국관계의 현안은 국제기구나 협상의 틀 내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증대할 것임.
 - 다만, 중국의 부상과 동북공정 등이 중화주의와 함께 동반될 경우, 한·중관계는 미묘한 갈등관계에 놓일 수 있음.

IV. 정책적 고려사항

<인적 네트워크의 강화>

- 균권의 이양이 제도화된 틀 내에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중국의 정국이 안정되어 있고 대내외정책도 연속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었음을 의미함.
 - 따라서 기존 지도부와의 인적 유대와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미래를 대비한 4~50대의 중앙이나 지방 성급의 관료들과도 유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대표적인 인사로 리더주(국가민족위 주임), 판웨이(국가발전개혁위 부주임), 리커창(허난성 당위원회 서기)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중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숙지>

- 중국이 법과 제도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법안의 마련과 제도 정비를 모색하고 있는바, 장기적으로 중국이 제정한 관련 법안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 제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중국과의 교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중국 내에서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아울러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함.

<중국의 민족주의 형성을 경계>

- 국민의 통합과 안정을 위해 민족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것이 대중화주의(great china)로 형성되는 것을 경계해야 함.

- 중국정부가 지원하는 동북공정은 지속될 것이며, 따라서 발해 및 고구려사의 왜곡이 한·중관계의 발전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중국에 인식시켜야 함.
- 중국의 민족주의를 자극하지 않도록 탈북자와 조선족 문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모색해야 함.
- 북한을 포함하여 국제적인 민간 및 학술 교류를 확대해야 함.

<군사 현대화를 동반한 중국의 부상에 대비>

- 중국의 부상에 대비해야 하며, 특히 해·공군을 중심으로 한 군 현대화에 대비하여 해·공군을 포함한 군사교류와 군부인사와의 교류를 확대·강화해야 함.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2-01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전성훈	저	8,000원
2002-02	남북 환경·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손기웅	저	8,500원
2002-03	미국의 MD체제 추진 실태와 국제사회의 반응	이현경	외 공저	9,000원
2002-04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비교연구	서재진	저	8,500원
2002-05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이우영	저	5,500원
2002-06	북한인권과 유엔인권레짐	최의철	저	6,000원
2002-07	김정일 정권의 외교 전략	박영규	저	4,000원
2002-08	북한의 대남 정책 특징	전현준	저	4,000원
2002-09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이교덕	저	4,000원
2002-10	김정일총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2-11	“불량국가” 대응 전략	박형중	저	4,500원
2002-12	파키스탄-인도-북의 核政策	정영태	저	4,500원
2002-13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김병로	저	6,000원
2002-14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4,000원
2002-15	북한의 국가위협도 측정모델 개발연구	김규륜	저	3,000원
2002-16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발전 : 이론과 실제	김학성	저	5,500원
2002-17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	홍관희	저	5,000원
2002-18	북한 협동농장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2-19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오승렬	저	4,500원
2002-20	북한 농업의 개발전략과 남북한 농업협력	최수영	저	4,500원
2002-21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군사적 조치의 이행방안	박종철	저	4,000원
2002-22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김학성	외 공저	8,500원
2002-23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관계와 평화공존	박영호	저	5,000원
2002-24	북한의 핵개발계획 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저	4,500원
2002-25	화해협력정책과 남북한 미래상 연구	조 민	저	4,500원
2002-26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조한범	저	3,500원
2002-27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의 모색	임강택	저	5,000원
2002-29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이론적 모델)	박영호	저	4,500원
2002-30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점진적 시나리오)	조한범	외 공저	6,000원
2002-32	미국의 대·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이현경	저	6,000원

2002-33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와 추이	김영춘	저	4,500원
2002-34	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	배정호	저	5,000원
2002-35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과 中國	최춘흠	저	3,500원
2002-36	통일독일의 적극적 외교정책과 한반도	여인곤	저	7,000원
2002-37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김국신	저	4,000원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5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헌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향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 The 2004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최진욱	저	4,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2

서재진 · 최의철 · 김병로 외 공저 8,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2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9,500원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북한인권백서 2004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이금순 · 최의철 ·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2002~2003	6,000원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2-01 한반도 평화정착의 현황과 전망	4,500원
2002-02 북한 체제의 현주소	7,000원
2002-03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6,500원
2002-04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5,500원
2002-05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협력	6,500원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변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변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 · 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0, No. 1 (2001)	8,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0, No. 2 (200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1 (2002)	8,5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2 (200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협동연구총서

2002-01 남북한 '실질적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7,500원
2002-02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10,000원
2002-0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투자 방안	김영운 외 공저	9,000원
2002-04 남북연합기 북한 지역에 시장제도 정착 방안	박형중 외 공저	6,000원
2002-05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주변국 협력 유도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000원
2002-06 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박영호 외 공저	6,000원
2002-07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허문영 외 공저	5,500원
2002-08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김병로 외 공저	7,500원
2002-09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통합 및 운영방안 연구	강일규 외 공저	8,500원
2002-10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통합의 과제	양현모 외 공저	7,000원
2002-11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	윤종혁 외 공저	6,000원
2002-12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방안 연구	조은석 외 공저	10,000원
2002-13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방안 연구	길은배 외 공저	9,000원
2002-14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방안	김제인 외 공저	10,000원
2002-15 실질적 통합대비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협력 공동 추진 계획	신동완 외 공저	10,000원
2002-16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방안	김동규 외 공저	8,000원

2002-17	2002년 협동연구 요약집		10,000원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2-01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국제, 김국신,이현경
2002-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 결과분석	북한, 최진욱,임강택
2002-03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관련 동향분석	인권, 서재진,김수암
2002-04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	국제, 최춘흠
2002-05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주민생활 변화에 미칠 영향	인권, 서재진
2002-06	후진타오시대 중국의 대내외정책 전망	국제, 신상진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국제,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경제,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인권, 최의철,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국제, 이현경,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국제,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북한, 박형중,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북한,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정책,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평화,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북한인권,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북한,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국제, 여인근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인권,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사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운,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I)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근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559, 901-2529 FAX:901-2547)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통일정세분석 2004-19

發行處	통 일 연 구 원
編輯人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 901-2527(代), 팩스 : 901-2543
印刷處	도서출판 늘 품 전화 : 313-5326
印刷日	2004년 10월 일
發行日	2004년 10월 일
